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http://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 베네수엘라, 심각한 경제난에 약탈 이어져

식품, 약품 등 생필품 부족에 고통하는 국민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면서 나라 곳곳에서 연일 식량 폭동과 약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베네수엘라 서부 메리다 시내에서 상점을 약탈하던 17세 소년이 진압군의 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최근 2주 동안 상점 등을 약탈하다 경찰과 군에 의해 사살된 사람은 4명이다.

베네수엘라 폭력관측기구에 따르면 매일 전국에서 10건 이상의 약탈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과 진압군이 최루탄과 총기로 이들을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AP통신은 굶주린 베네수엘라의 중산층까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설탕뿐만 아니라 화장실 휴지와 식용유 등 생필품과 의약품 등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슈퍼마켓 앞에서 몇 시간씩 길게 줄을 서 보지만 물품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펙(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6%를 원유에 의존해 왔지만, 저유가가 장기간 이어지면

서 외화 수입이 줄어 생필품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정부가 생필품 수입 업체에 환율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거나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989년의 ‘카라카조(Caracazo)’ 폭동이 재현되는 것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당시 대통령 정권 하에서 세계 유가 폭락으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자 대규모 폭동이 연일 계속 되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GNPNEWS]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이사야 55:2)

**기도** | 하나님. 수많은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약할 때 우리의 전부가 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 티벳 어느 길에서

제공: WMM

**햇빛** 이 따갑게 내리쬐는 거리. 한 남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피리를 불고 있다. 남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여자의 두 다리가 온전치 않다. 낡고 빛바랜 주전자 속 언뜻 비치는 지폐 한 장, 햇빛을 향해 뒤집어져 있는 여자의 손바닥이 애처롭다. 여자에게 무릎을 내어주고 허공에 등을 세우고 앉아있는 남자는 누

구에게 피리소리를 들려주고 있을까. 듣는 이 없이 자신의 귀에 되돌아오는 피리소리에 위로 받으며 그저 하루를 살 뿐이다.

이들이 입은 삶의 무거운 베옷을 벗겨주실 분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와 하나 되어 생명을 잃어버리고 애곡하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허공을

떠도는 피리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여자의 잠든 얼굴에 쏟아지는 값없는 햇살처럼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아낌없이 쏟으신다. 자, 일어나 춤을 추어라 내가 기쁨의 띠를 돌려 주리라. [GNPNEWS]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편 30:11)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4)

## 하나님이 싫다면 당신은 절망입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싫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그리 큰 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 살 길을 예비해주셨습니다. 그 반역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감당할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예수님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형벌을 받았습시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사랑이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어떠한 노력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GNPNEWS]

### INSIDE

**02** 뉴스 | 한국 일부 일간신문, 쿼터제 보도 친동성애적 시각으로만 다뤄

**03** 기획 | 박해 박해 이후 부흥... 박해받는 교회의 메가트렌드

**05** 인터뷰 | 정학정·정조이 선교사 “말씀에 순종하다보니 오직 이 길만 보였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소망이 없는 그때, 캠퍼스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다”

한국

# 국내 일부 일간신문 퀴어축제 보도 친동성애적 시각으로만 다뤄

퀴어축제 보도 35건 분석...경향, 한겨레, 한국 친동성애 성향



▶ 6월 9일 서울시청 대합문 앞에서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며, 동성애 반대측을 혐오와 증오를 일으키는 구시대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친동성애 성향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관한 국내 일간신문의 보도 35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일부 일간신문의 경우 친동성애 성향의 보도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퀴어축제 행사 전날인 10일부터 축제 다음날인 12일까지 3일간 국내 일간

신문의 기사를 언론연구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퀴어축제와 관련 가장 많은 기사를 출고한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으로 모두 8건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경향신문 7건,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이 각각 5건, 한국일보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 신문은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인데 보수 기독교의 반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시각을 기사에 담았다. 경향은 행사가 끝난 12일 '혐오

의 가림벽에 갇힌 성소수자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게재했으며, 한겨레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성소수자 부모들의 포옹", "성소수자 위해 기독교 성찬식 연 목회자들" 등 친동성애자 성향의 보도로만 일관했다. 또 한국은 "환갑의 레즈비언 서울광장에서 자유를 외치다.", "퀴어축제마다 나타나는 그들과의 '징한' 16년"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친동성애 성향을 뛰어넘어 동성애 반대측의 움직임을 아쉬워하는 관점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반해 헤럴드경제는 2건, 파이낸셜타임스가 1건의 기사를 통해 행사 자체를 알리는 단순 사실 보도에 그쳤다. 한편, 국민일보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선 안돼... 잘못 깨닫고 돌아오길"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기독교측의 입장을 제시했다. [GNPNEWS]

아프리카

## 에리트레아 국민, 노예 같은 비참한 삶



▶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마이크 스미스 인권조사위원장(출처: madote.com 사진캡처).

북아프리카에 있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에리트레아의 국민들이 폭정에 시달리면서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실태를 담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마이크 스미스 에리트레아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웨르키 대통령이 1991년 권력을 잡은 뒤 강제 징집, 투옥, 고문 등으로 30만~40만 명의 국민이 수용소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매달 5000여 명의 에리트레아인이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탈출하다 붙잡히면 총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에리트레아 국민이 작년에만 4만7025명이었다. 스미스 위원장은 "에리트레아는 독재국가"라며 "독립된 사법부, 입법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민주적 기구가 없다. 이 같은 구도가 25년간 이어온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리트레아는 2015년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D)에서 꼽은 세계에서 가장 언론통제가 심한 나라로 선정됐다. 2위는 북한이다. 뿐만 아니라 에리트레아에서는 청소년기에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무기한 복무를 하게 돼 있다. 외국인 입국이 거의 불가능해 제대로 된 실상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반인륜 범죄는 집단 수용소에서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에리트레아가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GNPNEWS]

한국

## 청소년복음수련회 제14기 훈련생 및 섬김이 모집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 14회 청소년복음수련회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문광교회(최중덕 목사)에서 2016년 8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4박5일간 열린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련회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27일(월)부터 7월 20일(수)까지. 원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와 복음캠프, 복음학교 수료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훈련생 모집기간과 같다. 회비 3만원. 문의 ☎ 010-3380-5781, 010-



7331-7710, 이메일: nggn777@naver.com, cafe.naver.com/youthgnr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29~6.1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이스라엘서 20만명 집결, 동성애자들 축제 열려

이스라엘 텔아비브 야포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게이 프라이드'(Gay Pride)가 열려 텔아비브 인구 절반에 달하는 20만 명이 참여했다고 현지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동성애자들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유일한 도시다. 주님, 정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러한 일들을 더 이상 옳다하지 않도록 진리를 알게 하소서.

#### 지중해 익사자 2년만에 1만 명 돌파

2014년 초 이래로 지중해에서 선박 사고로 숨진 난민 수는 1만85명에 달했다고 7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했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규모의 인명 손실을 용인할 수 없고 이를 저지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 절망에서 더 나은 소망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미국 플로리다 게이 클럽서 총격... 50명 사망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게이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12일 새벽(현지시간) 2시경 총격이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 이상이 다쳤다고 CNN방송이 현지 경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용의자는 총격 직전 911에 전화해 자신이 수니파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말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희생자들의 가족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참된 평강을 사모하게 하소서. [GNPNEWS]

미국

## 영어권 열방복음캠프 7월 25일~29일 미국에서 열린다

영어권 성도를 대상으로한 열방복음캠프(G-CAN, Gospel Camp for All Nations)가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다. 12세 이상의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캠프 훈련생 접수는 오는 7월 16일까지. 참가신청은 캠프 웹사이트(glorifythegospel.or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G-CAN미니스트리 (미국)301-642-3776, 이메일: taelee76@gmail.com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6월 4주~7월 1주

- |   |   |
|---|---|
| <b>6월 4주(6.27~7.2)</b><br>▶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타 (강은선) 061-271-9981<br>▶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희락) 031-750-1009<br>▶경기 평택 / 평택세교중앙교회 (최환찬) 031-657-9355<br><b>6.30~7.2, 7.7~9, 7.14~16 (08시~20시)</b><br>▶서울역광장 / 실로암거리교회 (송**) 010-3887-7776<br><b>7.2(06시~18시)</b><br>▶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 010-3751-0403 | <b>7월 1주(7.4~7.9)</b><br>▶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br>▶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br>▶서울 강서 / 강서침례교회 (박연숙) 02-2694-9191<br><b>7.4~7.9(14시~19시)</b><br>▶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br><b>기도참여 문의</b><br>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



# 박해 이후 부흥... 박해받는 교회의 메가트렌드

전세계에서 교회의 극심한 박해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박해받는 교회의 메가트렌드10을 통해 전세계 교회의 박해상황과 복음화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매년 한 해 동안의 기독교 박해국의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오픈도어는 중국교회가 20세기 들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슬람 보수주의와 극단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국외로 탈출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10가지 트렌드를 요약, 정리한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박해현장 중국교회, 박해와 함께 폭발적 성장** = 근대역사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정권을 잡고 선교사들을 추방한 1949년까지 중국교회의 토대는 많은 선교사들의 역할만큼 견고했다. 그러나 문화혁명(1966~76) 기간에 가장 극에 달했던 기독교인 박해를 거치며 1970년초 기독교인의 수는 50만 명 아래로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80년대 중국 내륙에서 시작된 중국교회의 부흥은 현재 80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성도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부흥의 진원지인 중국의 가정교회는 전세계 복음주의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기독교는 또 중국 지식인들에게 문명화에 적합한 윤리기준으로,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보유해야 할 새로운 사회철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변명이 영적인 욕구를 이길 수 없음을 지난 중국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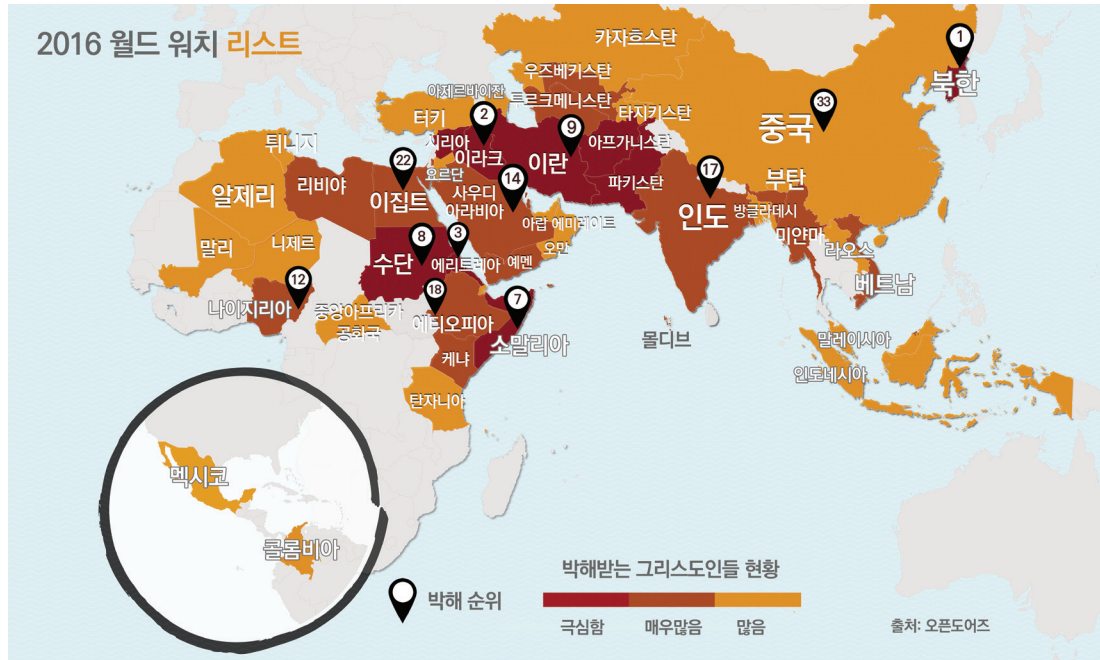
▶ **이슬람 보수주의로 중동의 교회 대탈출** = 최근 중동지역의 대규모 기독교인 탈출이 이라크에서 일어났다. 1991년 무렵 기독교인이 100만 명에 달하던 이라크는 시아파와 수니파 민병대들의 끔찍한 박해로 현재 겨우 30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 다른 지역도 동일하다. 한 세대 전만해도 베들레헴의 85%는 크리스찬이었으나 이제는 15%도 안된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은 1922년에 53%에 달했으나 이제는 2%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기독교인 대탈출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공동체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쪽으로 무슬림의 문화가 보수적으로 바뀐 탓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

터 10여년 사이에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으로 300여만 명이 이민을 떠났다. 이들은 그곳에서 강경한 이슬람을 만나고 귀국한 뒤 엄격하고 불관용적인 '와하비즘'을 퍼뜨렸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이집트는 80년대 이후 유사 이슬람국가로 탈바꿈했다.

오늘날 중동에서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은 국가적 극단주의, 독재자들, 광신주의, 문화적 이슬람화, 폭력적 종족주의, 가족의 불관용 등이다. 이중 최근에는 문화적 이슬람화가 가장 중요한 박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Muslim Based Believer, MBB)의 교회 형성** = 지난 10년 간 엄청난 수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개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이란이다. 바로 위성TV 때문이다. 위성TV를 통해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란의 전체 기독교인 인구 46만 명 중 약 36만 명이 MBB로 추산된다. 중동에서 이들 MBB교회는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회에 이어 4번째 계열



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유럽 공산주의 붕괴와 동유럽 기독교인들의 해방** = 동유럽에서 교회 박해의 주된 원인은 무신론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나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의 결과로 엄청난 변동과 함께 박해의 원인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몇몇 동유럽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시 발흥하는 정교회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다. 실질적인 독재자가 남아 있는 벨라루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발



틱 국가들에서는 자유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종교적 민족주의의 장벽과 마주친 아시아 교회** = 인도가 순수한 힌두 민족의 땅임을 주장하는 힌두트바로 인해 인도 교회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큰 고통을 받아왔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힌두트바 추종자들의 요구는 인도에서 모든 비힌두인들을 추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인도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지배당의 부패로 야기된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번성했다.

1997년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살육은 극에 달했다. 이같은 흐름은 2004년 정권을 잃은 이후까지

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헬 벨트 = 사하라 사막 남쪽의 동서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띠 모양의 사헬 지대는 아프리카 기독교와 이슬람 극단주의가 충돌하는 지역이다.

사헬지대의 중앙부에 위치한 북부 나이지리아는 21세기 초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동쪽 끝의 에리트레아의 기독교인들은 낮에는 컨테이너 감옥에서 뜨거운 열을 받고 밤에는 추위로 고통을 받았다.

동쪽의 수단 북부와 남부로 이슬람과 기독교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198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딩카, 누에르, 실룩, 누바족 출신의

양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세속주의자들은 성적문제뿐 아니라 연설, 십자가 목걸이 같은 기독교인의 상징물품 사용, 교육과정 등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 색채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해 박해로 대응하고 있다.

▶ **서구권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구 등장** = 열방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움직임도 있다.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이 그것이다. 최근의 흐름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이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법 제정에 따라 미 국무성에 해외 종교 자유를 위한 대사가 세워졌으며, 전세계 종교 자유에 관한 실질적인 연례보고서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수립에 '종교와 공공생활을 위한 퓨포럼'같은 전문 연구집단의 연구보고서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1년에 나온 이 보고서 '종교에 대한 세계의 규제들'은 "전세계 68억 인구 중 거의 70%가 종교에 높은 규제를 가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로부터 개신교 기독교인 박해 축소** =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종교전쟁이란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다. 교황들은 그 시대의 윤리에 따라 다른 신학 이론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사형시켰다.

이같은 박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남미 로마 카톨릭교회는 오순절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 정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이란인 MBB가 교회에 들어오면 쫓아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전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오순절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카톨릭과 정교회의 박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 이집트 콥트 정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에 맞서 기보다는 성경배포나 성경 공부 모임 개설, 성경교사 양성 등으로 개신교 기독교인들과 마찰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GNPNEWS]

이어졌다. 스리랑카에서도 불교 민족주의가 기독교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 **범죄집단의 적으로 여겨지는 남미 교회** = 과거 마르크스 혁명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던 남미 교회들이 이제는 마약밀매업으로 탈바꿈한 반군 및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같은 범죄와 부패의 흐름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부정부패를 일삼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던 반군들이 마약 범죄조직과 연계하거나 성매매 같은 범죄조직과 연계되면서 이에 맞서는 기독교인들이 공공연한 박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 **이슬람 극단주의와 교회가 충돌**

2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동부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는 무법천지여서 이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서구국가에서 무신론운동으로 교회를 박해** = 9.11 사태 이후 무신론자들은 국가가 반종교적이어야 하며 공적으로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은 세상 언론들의 동조를 받으며 서구사회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종교적 활동을 관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이 무신론운동이 현재 교회 박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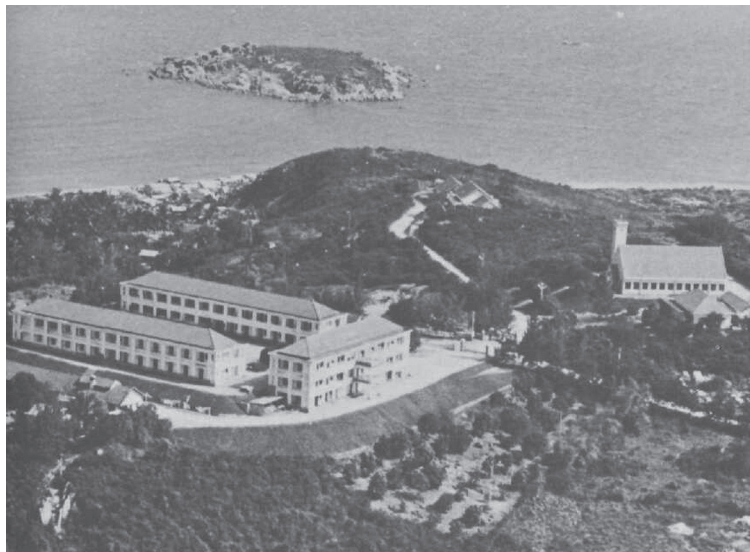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서구권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신

기획 | 베트남 선교 열전(14) - 베트남 전쟁 전후시기 선교 이야기

## “회개와 용서”... 베트남에 번지는 부흥의 불길

이 연재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베트남에 입국한 찰리, 에그룡 선교사 부부가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서 복음의 통로가 된 과정과 베트남 주민들의 상황을 담고 있다.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베트남의 현대 선교사(史)를 이들의 회고록 ‘베트남에 사랑을 담아’(To Vietnam with Love)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1971년 가을 냐짱(Nha Trang)의 신학교에도 부흥이 시작됐다. ‘부흥의 역사’ 과목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그들은 매일 아침 5시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12월 3일 금요일, 수업을 위해 117명의 학생들이 교실에 모였다. 한 학생이 인도네시아의 부흥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한 후 바로 지금 베트남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 명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학생이 흐느껴 울며 자기 죄를 고백하자 갑자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교실 안은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다. 하나님의 영이 학생들 모두에게 임했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그곳에 임한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 학생들은 상대를 찾아 미움, 속임, 시기, 도둑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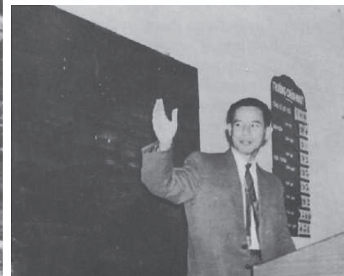
▶ 냐짱 신학교의 전경(왼쪽). 학생들의 체플시간 모습과(오른쪽, 상) Mr. phu 교수의 수업장면(오른쪽, 하)(출처: CMA alliance)

한 것을 고백했다. 여기저기 서너 명씩 모여 부둥켜안고 흐느꼈다. 모임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이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뒤따랐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 부흥의 확산

냐짱의 부흥은 곧 다랏의 고원 도시로 이어졌다. 신학교에서 부흥을 맞이한 5명의 꺼호(KoHo)족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귀향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서 하신 일들을 나누었다.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성령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 명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한 십대 청소년이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부모님을 속인 것과 또 다른 죄들을 고백했다. 어떤 학생은 찬양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했다. 죄로 인해 심령이 상한 그들은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다음날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자의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일을 증거했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젊은 청년이 아픈 자,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꺼호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약하고 냉담한 교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되었다. 어떤 꺼호 신자는 감춰놓았던 50만

피아스타(약 미화 2000불)의 십일조를 드리기도 했다.

### 부흥의 여러 가지 사건들

한 달 후 전국 부족 회의가 다랏에서 열렸다. 그곳에서도 역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났다. 다랏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고향으로 흩어졌다. 이내 부흥의 불길이 산지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후 3년 동안 9개 산지 부족에서 2만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한 부족에서 1만 명이 회심하는가 하면 몇 주 전에도 신자가 없던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

한 마을에서는 무당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진 이들이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다시 일어났다.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던 베트남 군 소령은 그곳에서 십자가의 꿈을 꾸고 기적적으로 탈출해 그의 모든 집안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상들을 불태웠다. 이것은 베트남의 고산지대를 휩쓴 부흥의 흔적의 일부다. 성도들은 매일 아침에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응답하셨다. 이 부흥은 공산주의자들이 베트남을 장악한 후에도 한참 지속됐다. <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언제나 신성모독 위협

신성모독 혐의자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추방되고 있는 기독교인



▶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모습(출처: IBM Times 캡처)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면 나머지 가족이나 친인척은 이슬람 마을 주민들의 배척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전세계 기독교 박해소식을 전하는 월드워치모니터(WWM)는

파키스탄의 우스만 마시라는 한 남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신성모독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기독교인 가족과 친인척 10개 가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WWM에 따르면,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우스만 마시라는 남성은 10년 전 학교 동창이던 파라 노어라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처음엔 신부축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은 무슬림 의식

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다 최근 마시가 페이스북에 기독교인인 가족 가운데 한 명의 여성 사진을 공개했다. 마시는 여성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여성을 헐뜯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에 의해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같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마시를 신성모독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WWM관계자는 마시가 정작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전했다. 마시가 사용하는 성(姓)인 마시(Masih)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메시아(Messiah)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마시가 페이스북에 기독교인 여성 사진을 올려 헐뜯었다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신성모독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신성모독죄와 관련, 마시를 아는 한 사람이 “그

가 이슬람에 대해 신성모독적인 메시지를 자신의 핸드폰에 여러 차례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한 사람이 신성모독으로 수사를 받으면, 그의 나머지 가족이나 친척들은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시의 삼촌은 최근 집주인으로 부터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마을을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다.

한편 이밖에도 최근 신성모독으로 기소된 사례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임란 마시라는 사람은 이슬람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한 미국 목사의 설교를 핸드폰으로 시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 구즈라트에서 한 여성은 무하메드라는 이름이 새겨진 배너를 바닥 깔개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말씀에 순종하다보니 오직 이 길만 보였어요”

주님만 따르는  
정학정·정조이 교육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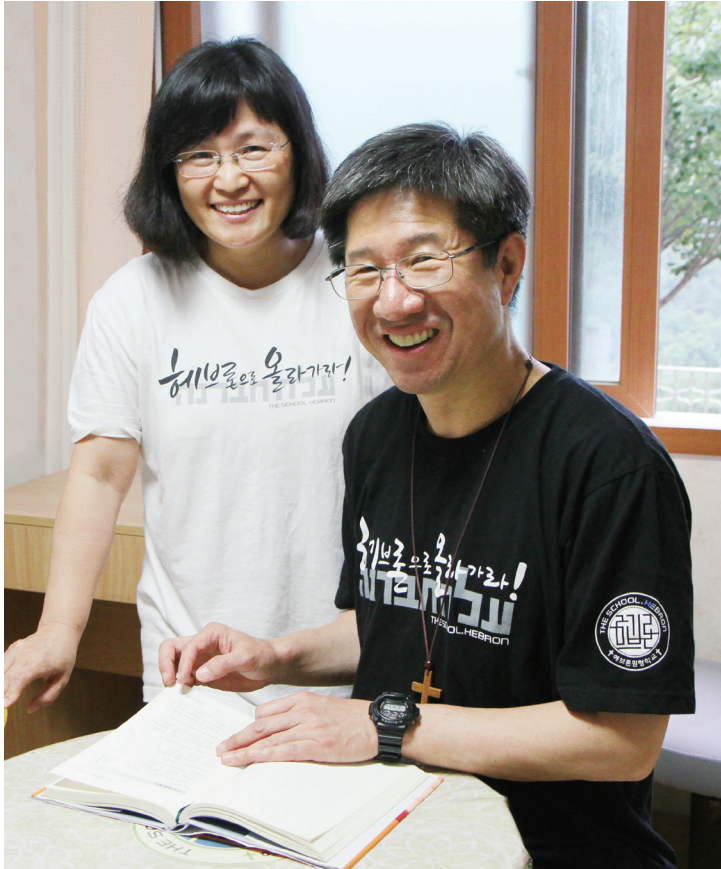
미국에서 누리던 안락한 삶을 모두 내려놓고 충남 서산의 산골짜기 기독교 해브론원형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학정, 정조이 교육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이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 미국에는 언제 가셨나요?  
정학정(이하 학): “1985년 제 나이 스물세 살 때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당시 한국에서 저는 신학교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 권고휴학을 당할 만큼 매우 어두운 시기였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을 마치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러 갈 정도로 신앙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영혼에 뭔지 모를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지께서 먼저 미국에 건너가셨고, 3년 뒤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도 함께 건너가게 됐어요. 작년이 미국에서 산 지 30년째 되는 해였는데 생각지 못하게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네요.”

정조이(이하 조): “저는 1986년 친척 분들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 형제 분들이 다 계셨거든요. 그 때 제가 가족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여서 이민을 결정하는 열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용기 있게 사실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도 별다른 반감 없이 가족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어요.”

### 가족과 함께 80년대 미국 이민

-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조: “미국에 간지 한 8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만났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건 기적이네요. 그 넓은 미국에서도 남편은 중부에, 저는 동부에 있었으니까요. 사실 만날 확률이 거의 없었죠.”  
학: “그즈음 저희 집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 결국 부모님 모두 한국으로 되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항에 부모님을 모셔다드리고 나오는 길에 주차비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문득 ‘이러다 내가 홈리스(homeless, 노숙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돌아올 생



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사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1992년에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 미국에서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조: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신앙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고, 어머니는 불교신자셨거든요. 한 집안에 종교가 나뉘면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어린 제가 믿기엔 불교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사촌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라고 하셨죠.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어요.(웃음) 그렇게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저에게 교회생활이 시작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공부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봉사도 하면서 ‘믿음 있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학: “주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워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다가 결혼한 이후에 USC영화과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LA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출석하게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영화쪽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 감독협회 다큐멘터리 아시아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미국 공영방송에서 방영도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교묘하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었는데 당시엔 몰랐죠.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말하자면 할리우드가 ‘산지’였죠. 그래서 큰 아들 이름도 갈렙이라고 지었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그 아들이 열방을 산지로 취하는 다음세대 선교사가 되었어요.”

### 하나님의 인도로 신앙생활 시작

- 영화의 꿈을 접고 난 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나요?  
학: “생활은 굉장히 안정 되어갔어요. 아내가 공인회계사였고 저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LA동부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가정이 그곳으로 파송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교회로 출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자 한계에 부딪치고 점점 지쳐가더군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기록해지고 싶은 제 안의 갈망과는 다르게 계속 음란한 생각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 위기 상황을 만나신 거군요.  
학: “그런 내적갈등을 겪으면서도 새벽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출장을 가면 새벽 2시에 일어나 2시간 운전해서 새벽예배 드리고 다시 일하러 갈 정도였죠. 존재적으로 기록해질 수 없는 나를 그런 식으로라도 기록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저를 모두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록하지 않다는 괴리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제 안에 있는 죄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걱정인지 더 커지기만 했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가게 된 훈련과정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조: “남편이 한 신앙훈련 과정을 통해 복음 앞에 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4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한 시간씩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그런 모습

을 보니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다른 기도도 아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저도 결국엔 남편을 변화시킨 복음 앞에 서게 되었죠. 복음 앞에 서보니 저는 죽을 죄인이었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기록해질 수도 없는 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비로소 제게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학: “복음 앞에 선 이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 눈이 열렸어요. 그전까지 여러 번의 선교경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노년에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뭔가 잘 안될 때 도피처처럼 선교지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반감도 컸어요. 그러나 주1회 참여하는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취하셨고 결국 제가 끝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선교사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셨어요.”

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 주셔서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게 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달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2주 동안 아웃리치를 간 일이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바쁜 시기에 2주 동안 휴가를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그동안 한 번도 일을 쉬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았던 그 선교훈련을 저도 받으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단 1:8)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허락이 안 되면 그냥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 보자라는 심정으로 휴가 신청을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가 처리가 되고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분배되었어요. 기적이었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보니 지금 여기 있게 된 것 같아요.”

- 그러면 교육선교사로는 어떻게 헌신하게 되셨나요?  
학: “미주에서 열렸던 청소년복음캠프의 섬김이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6면에 계속)

### 세상 영광을 위해 나아가던 삶 영화감독이 되려고 노력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 다음세대 향한 하나님 마음을 부여주신 주님께서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로 부르심 존재적인 헌신으로 나아가

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부동산 일이었죠.”  
-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삶이네요.

학: “지금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 과정 중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면 그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면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성공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 “남편이 영화감독으로 할리우드를 향해 막 달려가려고 할 때



▶ 두 아들 갈렙(우), 가브리엘(좌)과 함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의 빛을 발하라(3)

# “소망이 없는 그때, 캠퍼스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병과 같은 사건으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어 갔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민족의 마음을 모아 외쳤던 독립선언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소망의 불이 이미 다 꺼져버린 후의 몸부림이었다.

소망 없는 그 때,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캠퍼스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셨다. 미국 전역 160여 개 캠퍼스에서 일어난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자!’고 외쳤다. 당시 미국 캠퍼스는 지금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험악한 분위기였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야유하기도 했다. 그래서 소수만 모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다. 비록 소수였지만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D. L. 무디가 이끈 헬몬산 수련회로 이

어졌다. 250여 명이 모인 그곳에서 수련회가 채 끝나기도 전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교자원운동’(SVM)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자원운동에 서명했고, 그 중 2만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해외선교사로 헌신했다. 바로 이들이 한국을 비롯한 미전도종족을 위한 선교의 토양이 되었다.

그들은 미래를 보장받았던 명문대 출신들이었다.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쓸 만큼 그들의 헌신은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들의 유일한 가치는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선교지 중 하나였던 조선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밀려왔다. 헌신, 수고, 희생, 순교 등 그들이 뿌린 씨앗은 감히 말로 할 수 없다. 산업화 이후 거친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와 미국의 대학마저 사악한 반기독교적

“  
우리 민족의 소망의 불이  
다 꺼져버린 그때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자!’는 캠퍼스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셨다.  
”

인 분위기로 침몰해 갈 때, 소수의 무리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작은 불씨를 사용하셔서 대학가를 흔드셨다.

이 SVM 운동의 주역이었던 존 모트가 1907년 한국을 방문했다.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한일합병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가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휘몰아치던 때였다.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고, 우리 영토는 일본제국주의의 군홧발에 유린당하



고 있었다. 그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눈에 보이는 모든 희망이 꺾인 어둠 속에서 빛나고 설움 받던 우리 민족의 가슴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 부흥의 불을 던지셨다.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은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터져나갈 만큼 두려움이 밀려오면 거꾸로 그 두려움이 극단의 용기로 바뀌는 수가 있다. 더 내려

갈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치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더 내려갈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어진다. 허망한 이유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극단의 결단으로 역전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지금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새벽 직전의 어둠이라 말할 수 있다.(2014.8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 ‘경건의 열망 30일 기도정보’ 7월분 배포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위한 기도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진행된다. 10월까지 교회나 기도모임, 가정,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 기도 네트워

크는 매월 발간되는 30일 기도정보집을 활용하면 된다. 기도정보집은 뜻 있는 분들의 헌금으로 제작, 무료로 배포된다. 문의 ☎ 010-2798-4641(복음기도동맹 사무국) [GNPNEWS]



### 2016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대상**

- 2016년 현재 4학년, 6학년, 8학년, 10학년 (2016년 현재 해당 학년이 아닐 경우, 한 학년에 한해 하향지원 가능)
-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에 희망하는 사람

**원서교부**

- 원서 접수 기간 : 2016년 7월 12일(화) ~ 2016년 7월 29일(금) 소인까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

**입학설명회**

-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2시~5시, 장소는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 2016년 6월 13일(월)부터 ~ 2016년 7월 2일(토)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할 것 - 입학설명회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단, 왕의친구학교(순회선교단) 지원생은 개별 연락을 주십시오.)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16년 8월 6일)
- 2차 면접 및 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년 8월 20일
- 입학식 : 2016년 9월 6일(화)

**문의 및 접수처**

- 070-4369-7571, 010-8459-1718
-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510-1 헤브론원형학교(구 시온수양관)
- hebronschool@hanmail.net
- www.theschoolhebron.org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원형학교

<5면에 이어>

Interview

###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으로 십자가복음 만나

그때 복음 없이 이곳에 사는 다 음세대들의 상황을 보게 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한다는 헤브론원형학교 소식을 듣게 됐어요. 큰 아들 입학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미국에도 이런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번갈아가면서 6개월씩이라도 학교를 경험할 것을 권면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 제 내면 안에 ‘이거다!’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디로 부르실지 기다리던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6개월이 아니라 평생 헤브론원형학교에 종신 교육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게 되었어요.”

조 : “그 과정에서 집과 직장 과 교회를 정리하는 일들이 참 만만치 않았는데요. 주위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의 조언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기

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고 그냥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자는 결론을 내렸죠.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정말 다 버리고 가방 두 개씩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지만요.”

-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결정하셨군요. 끝으로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조 :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삶의 터전을 완전히 허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다보니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고백밖에 할 게 없네요.”

학 :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과정 다음에 뭘 해보겠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뭐 이런 전제가 없다면 너무 자유로워요.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만 가지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보니 그전엔 왜 이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사역적인 헌신’만을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존재적인 헌신’을 드리게 된 거죠. 부르심은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GNPNEWS]

J.D.

믿음의 삶

# 주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반역,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다

기도. 복음을 만난 후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지난 5월초 부흥을 사모하며 열린 한 금식성회에 참여키로 한 그 날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다. 부흥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막연했다. 그저 주님의 큰일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불같이, 너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집회를 통해 보게 된 부흥은 세상, 정욕, 옛 자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 복음에 믿음으로 연합하

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이 죄인인 나를 이기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이었다. 집회가 끝났지만 총명한 주님의 은혜는 여전했다.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철야기도를 드렸다.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다.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되자 졸음이 밀려왔다. 금식을 한 탓에 몸도 지쳐갔다. 순간 기도를 멈추고 싶었지만 주님께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 죄인인 나를 이기시는 부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사 62:1)” 누가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야로 잠잠치 않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 주님이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일으키자 잠이 깼다. 다시 예수생명의 햇불인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할



수록 내가 얼마나 열방에 대해 무지하고 방관했는지, 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가로막혔는지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 환란과 허망함 속에 부를 이름이 없어 신음하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피투성이라

도 살라!’ 외쳤다. 밤새 주님을 독대하며 내 온 마음을 쏟아놓았다. 기도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녘에야 기도를 마쳤다. 주님과 깊은 사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

매일 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진리로 비추기 시작하셨다. 난 중보할 때조차 그 대상의 변화를 주목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역하고 불신하는 옛 생명에 익숙한 생각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주님은 내가 하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지적하셨다. ‘분별’이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보에 대한 발판으로 여겼다. 그즈음 묵상 순서에 따라 민수기를 읽고 있었다.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에게 반역한 미리암, 제사장 직분을 탐낸 레위인들, 고라의 반역... 분별이라

고 했지만 결국은 판단이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 중보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에 올라 분별하며 판단하려 한 나에게 주님은 즉결심판이 아닌 그분의 긍휼과 의를 만족시킨 십자가를 내밀어 주셨다.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왕을 부르는 소리’로 찬양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는 나를 이기신다. 옛 사람에 속한 영역마다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기꺼이 충성하게 하신다. 정말 안전하다.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달려가는 이 길은 행복하다. 이 길 끝에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길 강청한다. [GNPNEWS]

박수현



## “주님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내가 다니는 학교엔 ‘전도’라는 과목이 있다. 지난 학기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 학교에서만 20번이 넘도록 전도를 했다. 이젠 학교에서뿐 아니라 터미널과 오가는 버스 안에서, 동네 주변 등 어디든 가지 않고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게 된다. 거절과 비웃음, 때론 욕을 하며 나를 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친구들과 전도를 마치고 나면 내가 나눠준 전도지보다 더 많은 전도지를 주을 때도 있다. 땅바닥에 밟히고 찢어진 전도지를 줌노라면 마음이 교차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총만하여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외친 적도 많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전도한 적도 많았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전도를 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런 영적 상태로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까? 나 때문에 괜히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내면의 싸움을



통해 주님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란 것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다시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연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나 아주 작게 느껴지는 이 한마디가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보게 된다. 이내 주님은 이런 나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갈대같이 흔들리지만 주님은 항상 내게 능력이 되어주셨다. 난 신실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나는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주님은 굳건하셨다. 이런 주님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었고 이런 주님을 또한 전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전도를 하는 근거는 주님이다. 나의 연약함에 빠져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다. 나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짊어지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주께 달려있다.

###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의 능력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저절로

“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말한다.  
 작게 느껴지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지... 주님은 이런  
 나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

되는 일도 아니었다. 처음에 순종할 때는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비록 어눌하고 잘 준비되지 않은 말들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해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실 것을 확신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GNPNEWS]

김은수(20)

## 窓 | 창

### “낭비라니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 인디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당시 「LIFE」지에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질문하는 기자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낭비라니요? 저의 남편은 이것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은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에 담긴 글이다.

‘이 쓸모 없는 나뭇개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 5명의 순교자. 왼쪽부터 로저 요드리안, 피터 플레밍,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

피에로 만쪼니의 <예술가의 똥(Artist's Shit)>

## 배설물 같은 세상에 가치를 두는 이 땅



미술계만큼 의도적인 막장이 난무하는 예술계가 또 있을까? <예술가의 똥>은 제목이 설명하는 그대로 만쪼니의 배설물을 통조림 캔에 담은 것이다. ‘창작’이 아니라, ‘생산’된 이 작품은 막장 예술이면서, 동시에 미술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부추긴다.

이탈리아의 현대 미술가 피에로 만쪼니는 예술가가 만든 것이라면 뭐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당시 미술계의 풍토에 집중했다.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추상 작품이 고가에 팔리고, 점만 찍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미술 시장의 요지경 행태에 주목했던 것이



▲ 작품설명: 피에로 만쪼니, <예술가의 똥(Artist's Shit)>, 1961, 통조림 작품, MoMA

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가가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혹자

는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는 그의 아버지가 항상 도전적인 작품을 만드는 아들에게 “네 작품은 형편 없어(Your work is shit).”라고 한 말의 대답이라고 보기도 한다.

### 예술가가 만든 것이면 무엇이든 작품인 미술계 풍토를 비판

아무튼 만쪼니는 인간의 손으로 창조되었던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그는 총 90개의 배설물 캔을 만들었고, 캔 라벨에는 자신의 서명과 함께 판화에 붙는 에디션 넘버를 붙였다. “배설물 30g 신선 포장”이라는 친절한 설

명도 덧붙였다. 작품 가격 또한 당시의 금 시세에 맞췄다. 물론, 지금은 이 작품의 가격이 현재의 금 시세를 훨씬 웃돌게 되었지만 말이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전시실의 유리관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만쪼니의 <예술가의 똥>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고 했던 세상 것에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해 숭배하고 있는가? 비록 예술로 고상하게 포장했지만 고작 배설물이나 만드는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주시는가?

[GNPNEWS]

이상윤(미술 평론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세 아이의 엄마로 선교적 삶을 사는 법



나는 스스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어릴 적부터 주님 일에 쓰임 받고 싶었고, 청년 때 선교사 헌신을 결단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로 보내실지 기대하며 기다렸다. 그러다 전문인 선교를 꿈꾸는 형제를 만나 결혼했고, 주님이 열방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꿈꿔왔던 선교사의 삶은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낳게 되면서 끝까지 않을 것만 같은 육아의 시간이 펼쳐졌다.

주님께 더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만 같았다. 딱딱한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그 무렵 주님은 ‘복음과 가정’이라는 훈련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시간은 목마른 일상에 은혜가 쏟아지는 단비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린 두 딸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이기에 떠날 수 없어 그냥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되었

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소리 없이 일하고 계셨다.

### 아이 때문이라고 답답해 했는데...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존재적 죄인인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아이들과 상황에 가로막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핑계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 사랑하는 나를 자랑했던 것이었다.

복음의 포도즙 틀에서 터지고 짓눌리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b), 내가 너의 상급이라(창 15:1)’ 주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전처럼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내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

그동안 나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는 존재적 부르심이었다. 주부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땅 끝에 있는 선교사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덮어놓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 스스로 속은 것이었다. 주님을 오해했고,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음 앞에 서면서 드러

나게 된 내 실체다. 하지만 내 모습이 추악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농도가 그만큼 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존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있을 뿐이다. 주님은 내게 이 일을 이루셨다. 복음 안에 있어 안전하고 기뻐다.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나자 주님은 셋째 아이를 주셨다. 열방으로 불러주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내게 ‘보내는 선교사’라는 새 이름도 주셨다. 다시 훈련이 시작되었고 일상도 더 분주해졌다. 여섯 살, 네 살, 5개월 된 세 딸과 함께 모임

을 향해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복음 곧 나, 나 곧 복음’이 되기까지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이 기대된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거할 곳이 되었다. 열방의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지금 허락하신 장막 안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지는 내가 고민할 바가 아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시므온과 안나,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 역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꿈꾼다. [GNPNEWS]

최다혜

### 경건의 열망 오디오CD 발매

복음과 기도 메시지 시리즈  
경건의 열망  
다독서 2:11-14  
GNM-028CA  
오디오CD - A  
Track1 (00:00-28:09)  
Track2 (28:09-61:39)  
김용의 선교사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 (택배비 별도)

“나에게는 하나의 소원밖에 없다. 그것은 주님이며, 주님 밖에 없다” -진젠도르프의 고백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안에 우리의 모든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분의 꿈이 나의 꿈,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메시지 중에서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진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6. 5. 27 ~ 6. 16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강은정 김경선 김기형 김득기 김명해 김민성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유남 김은영 김진태 김진희 안병윤 유자인 윤경석 윤정미 이란영 이복길 이정옥 임종태 장근해 전인숙 정영숙 조상국 조성실 조형광 진영희 최근희 최 미 최정숙 하은숙 허혜진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검단교회 겨자씨선교회 김포전원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부천좋은감리교회 사랑교회 새소망교회 서경산업수지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인천주님의교회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죽전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12100)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67(별내동)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http://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경기, 다5046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